



제121호 | 구독배달안내 02-2039-2683

# 죽음의 뱃길이 된 내륙 운하의 비극 ... 아라뱃길 토막살인 사건

2020년 5월 29일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수로에서 의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한쪽 다리가 떠오른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해 9일 후 목상교에서 김포 방향의 수로에서 나머지 한쪽 다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채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 무렵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확인했다. 30대 남성 피의자가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라뱃길에 시신이 떠오른 지 한 달 만에 인천 계양산 중턱에서 백골회가 진행 중인 여성의 머리와 몸통뼈가 발견되며 파주 살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됐다.

DNA 검사 결과 계양산의 백골 시신은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과 동일인이었고,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시신은 B형의 혈액형, 키 160cm~167cm 사이의 30~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실종자, 미귀가자 등의 가족과 DNA 대조를 진행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

경인아라뱃길에 떠오른 토막사체 공개수사 전환에도 미제사건 분류

4년간 발견된 시신만 25구에 달해 첫 내륙 운하 '죽음의 뱃길' 불명예

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지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물길과 달리 아라뱃길은 수질관리를 위해 하루에 두 번 서해와 한강에서 물을 유입하기 때문에 물길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경찰 수사를 어렵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훼손된 시신의 상태였다. 다리와 두개골, 몸통이 발견되었지만,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손 부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두개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아 상태로 신원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특히하게도 시신에 남아있는 치아가 위아래 어금니 단 3개뿐이었다.

치과 전문의들은 남아있는 치아로 피해자가 생전 충치 치료와 교정 치료를 받았음을 추정했지만, 위쪽 송곳니가 뿌리째 뽑힌 것에 의아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누군가 강제로 뽑은 것으로 보였다.

범죄전문가들은 범인이 피해자의



경찰이 수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시신 안면복원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신원을 은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것에 주목했다. 범인은 숨진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측근이나 면식범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에도 진척이 없자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그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안면을 복원해 몽타주로 제작했고 국민 제보를 받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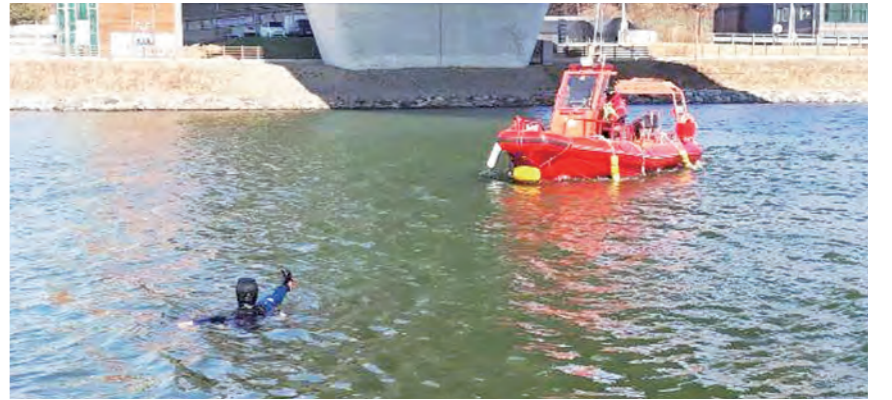
2025년 10월, 그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공개수사 전환, 언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범사자의 생전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긴

집목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인 아라뱃길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5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2024년에만 10구의 시신이 떠올랐다.

국책사업으로 2조가 넘는 돈을 들여 개통한 첫 내륙 운하가 열거적인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죽음의 뱃길이란 오명을 얻었다. 이 사건은 경인 아라뱃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미제사건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다.

국책사업으로 개통된 이후 운하 관리와 치안의 사각지대가 이어졌고, 그 사이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뉴스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 생겼다.

시신이 떠오르는 반복되는 공포와 의문 속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세월 속으로 사건이 묻히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누가, 왜, 그토록 철저히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가.

이소영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요구 ... 현직 경찰관 등 9명 검찰 송치

SNS로 접근해 신체 사진 받아 현직 경찰·군인·영주권자 가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요구·수집한 현직 경찰관 등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복경찰청 소속 20대 A 순경 등 남성 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남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월 SNS로 알개 된 10대 B양에게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1회에서 많게는 40여 회에 걸쳐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자 SNS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군 장병과 미국 영주권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경찰.

연합뉴스

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로 직접 연락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영희기자

##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반성"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

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의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정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지승연기자

\*광고책임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성추행
- #성폭행
- #성매매
- #아청법
- #도촬

# 성범죄 항소심, 꼭 잡아야 할 두 번째 기회

비교하기도, 따라 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성공사례  
**김형민 변호사의 실력과 진심입니다**

의뢰인 후기  
**3,059**

의뢰인 만족도  
**100%**

의뢰인 총 평점  
**5.0/5**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4층, 401호 | 대표번호: 02-591-8660  
 변호사 직통: 010-8074-8595 | ※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 “예산 확보하고도 손도 안대”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뒷전’

교제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데 수사비는 ‘미집행’·출장비는 ‘집행’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고, B씨를 연상케 하는 숫자 조합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지속적인 SNS 접근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스토킹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발생한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가해자는 며칠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발생 건수는 1만 545건에서 1만 3283건으로 26%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만 2995명으로 30%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지난해 각각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2023년 1.5%(100만원), 지난해 20.9%(1400만원)에 그쳤다.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피해자 보호·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항목은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800만원)는 2년 연속 100%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의 대응 부진은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지만, 법무부는 22.9%에 그쳤다. 2023년에는 9.9%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정의곽준호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전 직장 대표 아내 흥기로 협박했던 40대 남성, 13년 도피 생활 끝 실형

범행 미수에 그친 뒤 도피해 온거 특수강도죄 공소시효 15년 ‘아슬’

전 직장 대표의 아내를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13년간 도피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직장 대표의 아내 B씨를 흥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달아난 A씨는 13년 동안 신원을 숨기고 지내다 최근 검거됐다.

특수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4조는 흥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행위를 할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탄원을 주요 참작 사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원을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강도죄는 실제 금품을 빼앗아도 폭력이나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흥기를 사용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강도로 간주돼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처럼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법원은 초범 여부나 반성 정도를 종합해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07년 12월 이전에는 강도죄의 시효가 7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10년으로 연장됐다.

백대윤 기자

## 데이트 앱으로 ‘1인 2역’ 사기 행각 여성인 척 男 속인 30대 실형 선고

法, “자백 참작해도 비난 여지 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천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온라인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

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하고 가상의 인물 ‘C씨’를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면 C씨와 사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명으로 두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동물학대 범죄 여전 ... 새 양형기준 시행했지만 처벌은 그대로

법정 최고형 선고 사례는 드물어 “사법부 낡은 의식이 문제” 지적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동물학대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관련 신고가 4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총 4291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8건의 학

대 사건이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으로, 매년 6천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학대뿐 아니라 불법 실험, 무단등록·무허가 영업 등 관련 위반 행위자 전방이 포함된 수치다.

2021년 936명이던 검거자는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52명(중 719명 송치)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 735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동물권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처벌 수위

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불법 축사에 되먹이 24마리를 방치해 이 중 8마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농장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말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법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8마리 말이 방치 속에 죽고, 탈출한 말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그친 판결은 국민의 법 감성과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됐지만, 사법부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 행위에는 적극적인 실형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예준 기자

**백역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인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며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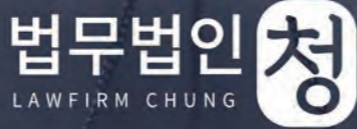
지금, 제대로 된 임대관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b>1,500세대 관리</b>	<b>전국 순위권에 속하는 단기월세전문부동산</b>
<b>투명한 정산</b>	<b>가족/지인 중 1인 지정하여 엑셀시트 실시간 공유</b>
<b>철저한 관리</b>	<b>미납자(만기일자 당일) 월세 독촉 및 강제퇴거처리</b>
<b>단독진행</b>	<b>단독으로 맡길 경우, 공실여부 상관없이 매월 정산</b>

[ 서신 주시면 상세 안내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서신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4층 (마곡동) 4-B 450호** ☎ 010-8569-6677

\*광고책임: 객준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징역 1.6년 받은 의뢰인, 체계적인 전략,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다른 결과!

## 변호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 "나왔습니다"라는 연락

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안에 계시던 분이 "나왔습니다"라며 연락을 주실 때입니다. 물론 중대한 사건에서 법리를 다뤄 감형을 받는 일도 보람이 크지만, 그래도 제 도움으로 누군가가 나왔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와닿는 보람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대구교도소에 계시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다는 연락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이 <더시사법률> 독자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보며 항상 용기를 잃지 않았다 하셨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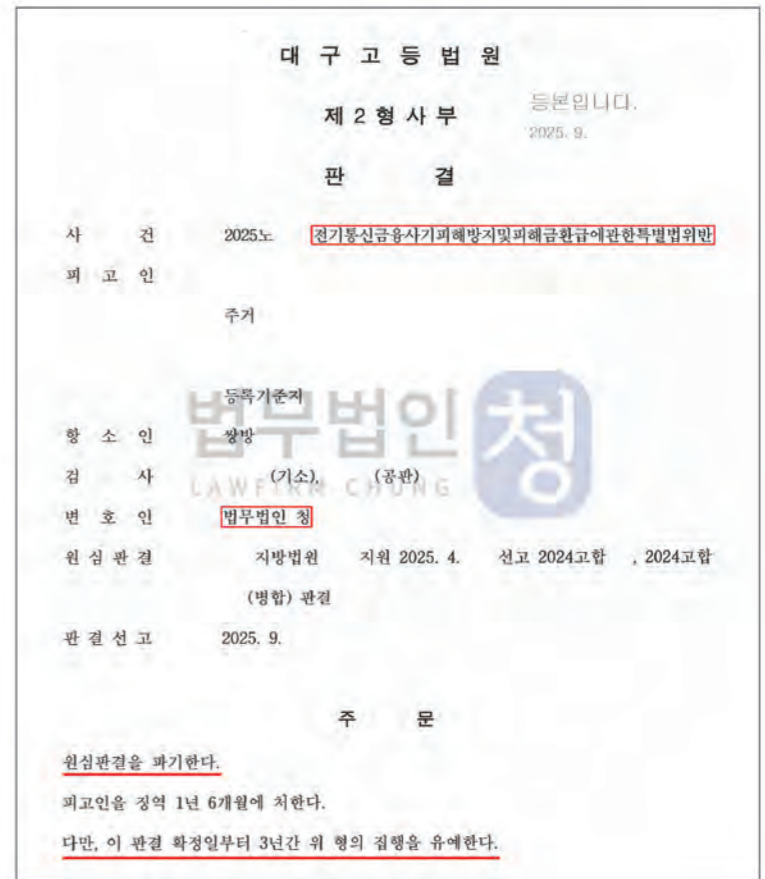
## 보이스피싱 사건, 쉬운 듯 결코 쉬운 사건 아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이 전문 중의 전문으로 다루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분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저희에게 맡기신 것인데요. 사실 저희는 징역 3년, 또는 그 이상이 선고된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많고, 그중 일부는 이미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웠다면 구속돼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점이 무척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처럼 많은 사건마다 집행유예나 감형 결과를 만들어 내는 로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재판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누가 말든 비슷하다? 판결문 보면 결과는 천차만별!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보이스피싱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인도 피해자가 2명인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무죄를 다툰 것도 아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실형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말든 비슷하다, 합의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수준을 최소로 낮춰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방심하지 않는 것, 판사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 -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기억할 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 드립니다. 무죄 주장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무죄를 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실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을 받고 항소심을 의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큼니다.
- ☑ 합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무죄 주장 사건에서도 '안전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로펌에서는 이 과정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정작 변호사는 나서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론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이며, 마련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팁(TIP) 알아보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신 건 분명 기쁜 일이지만, 잘못된 변론 전략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변호사 선임 시 활용 가능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유사 사건을 얼마나 많이 맡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과는 판결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통용될 수 있겠습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결과를 향해 달려나갈 시간입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곽준호 대표 변호사

## 사기·유사수신, 보피, 도박사이트, 리딩방, HTS, 자금세탁, 가상화폐 같은 방 사람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찾는 로펌

- 구형 15년, 전세사기 총책 검사 항소 기각, 감형
- 사설 HTS 투자사이트 64억대 팀장급 집행유예
- 비상장주식 총책 1심 추징금 61억 → 2심 0원
- 검사 구형 8년,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집행유예
- 경기남부청 보이스피싱 총책 비구탄 국내 송환
- 도박사이트 총책 항소심 감형, 추징금 감액
- 코알코인 대표이사 공소금액 210억대 사기 무죄
- 코인거래소 대표이사 1심 7년 → 2심 집행유예
- 코인업 대표 공소금액 958억원 대법원 파기환송
- CYC코인 중간모집책 10억대 특정사기 무혐의
- 검사 구형 8년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무죄
- 강서 PC방 살인사건 동생 무죄

상담 문의 **010-5234-641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1006호

변호사 선임·접견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공소장, 판결문과 사건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2㎡도 안 되는 ‘감옥 칸’ 인권위 “국가형벌권 한계 넘었다”



2017년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재소자 1인당 수용면적이 1.06㎡(0.32평)로 신문 2장 반이 안 되는 면적이 지적하며 직접 보기 위해 신문지를 까는 모습. 노회찬 의원실 제공

## 인권위, 전반적 개선방안 마련 권고 소송 핵심 자료 제출 안하는 법무부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이 1인당 수용 면적이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 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

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집행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넘어선 처우”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과밀수용의 원인이 개별 교정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수

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 및 국가 예산,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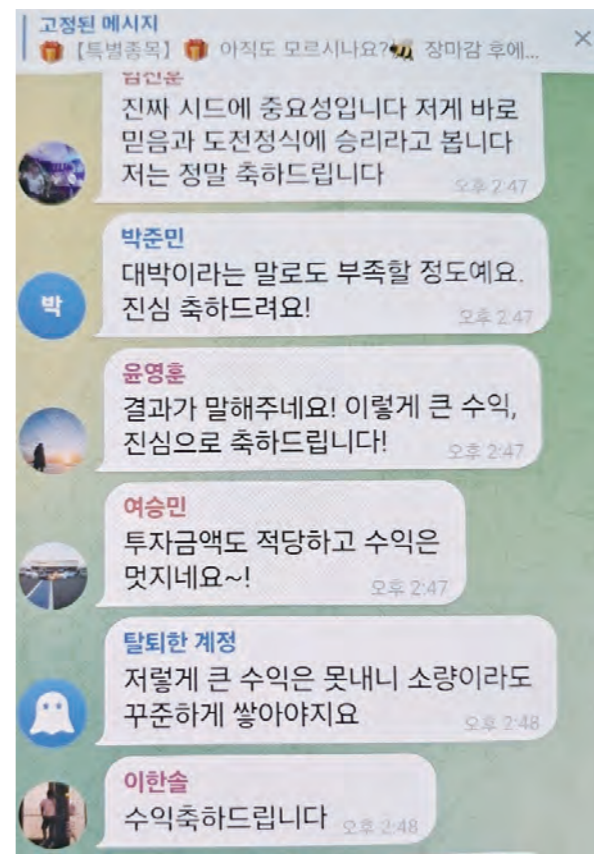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 수용은 위법”이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200건에 달하며, 소송마다 수십 명씩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원고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 증거인 거실 면적과 수용 인원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 인원은 시시각각 변동돼 별도의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백대윤 기자

# 전문가 행세하며 “수백 배 수익 냈다” 암호화폐 리딩 사기 일당 실형 선고



사기 일당이 ‘고수익 보장’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채팅방. 제보자 제공

## ‘VIP 투자방’ 유인해 18억원 편취 징역 4년·8년, 벌금도 각각 선고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정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

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인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

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조직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일당에게 안내받은 시간과 가격에 맞춰 코인을 매수했지만,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모두 조직 일당이였다. 투자금 역시 ‘거래 수수료나 ‘중개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일당에게 넘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인 거래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대윤 기자

# 캠핑장 남자 샤워실 이용한 여성 “여성 칸 잠겼는데 어찌라고”

## 상식 밖 행동 지적하자 욕설 뱉어 누리꾼, “남녀 바뀌었으면 징역행”

캠핑장 남자 샤워실을 이용한 여성이 지적하는 여성에게 되레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장에서 여자가 남자 샤워실 이용, 한 소리 했다가 쌍욕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는 여자다.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 누군가 있는 상황이라 잠겼었고 다른 여자분이 문을 두드리더니 열리지 않자 옆에 있는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나와 밖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좀 빨리 씻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10분쯤 지났고 A씨와 아들 둘은 한참을 기다린 상황이었다.

얼마 후 샤워실에서 나오는 여성을 향해 A씨가 “남자 샤워실에서 씻으시



뉴스1

면 어떻게 하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다짜고짜 “내가 문 두드렸어? 여자 샤워실 문이 잠겼는데 어찌라고 미친X야”라고 폭언했다.

A씨가 “욕하지 말아달라. 상식적으로 여자가 남자 샤워실 사용하는 게 맞냐”고 묻자 상대는 “미친X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라면서 아이들을 향해

“너희도 여자 샤워실 가”라고 말했다. A씨가 “아니, 그러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가도 되냐. 그게 맞냐”라고 되묻자 “너 조선족이지? 이 조선족 X야. 나이 곱게 처먹어”라고 했다.

A씨는 “결국 그 집 남편까지 와서 생전 듣지도 못했던 쌍욕 다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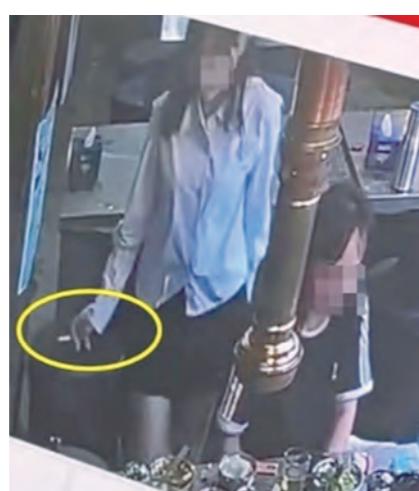
정현열 기자

# 식당서 흡연하며 침 뱉고 화장실 부순 中 관광객... “사과도 없어”

## 좋은 기억 주려던 식당 주인 ‘허탈’ 일각선 中 무비자 입국 규제 의견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화장실 변기를 부수는 등 몰지각한 행동으로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건은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자 2명과 남자 5명으로 구성된 중국 관광객 일행은 제보자 A씨의 어머니의 식당에 방문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외국인 손님이 오셨으니 잘 먹고 기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 ‘포스트’ 갈무리

보다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홀 안에 갑작스럽게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설거지하던 A씨의 어머니는 이유를

확인하려 홀로 나왔고, 일행 중 일부가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흡연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떠난 뒤 화장실을 확인한 A씨와 가족은 남자 화장실 바닥이 소변으로 흥건하고 변기까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들 중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도 있어서 한국말로도 한국 문화도 다 알고 있었기에 이 같은 상황을 따졌지만 ‘술만 먹으면 저렇다’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여행객이란 이유로 신고해도 잡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정말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

백보라 기자

# 코레일 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범행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마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마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영화 기자

# 尹, 연이은 불출석에 특검 “구인영장 요청” ... 법원 “결석재판 검토”

### 내란 재판 이어 13회 연속 ‘불출석’ 특검 “선택적 출석... 구인영장 필요”

보석이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결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는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기일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연합뉴스

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임의적으로 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

행하되, 교도관을 조사한 후 차회 기일부터 결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

사 대상으로 삼아 공소 유지까지 가능하게 한 특검법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한 특검 임명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 부장판사는 “법원이 제청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야 재판이 정지된다”며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오늘 공판 절차는 계속한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재판의 정체가 되는 범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문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한재에 위한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2조는 법원이 실제로 ‘제청’ 결정을 내린 때에만 재판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향후 결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자의 의무지만, 반복적 출석 거부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며 “출석 거부가 계속될 경우 결석재판이 현실화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민기자

## 키워준 비용 부모에 갚으려 유흥업소 뛰어든 H컵 법대생 ... “연 47억 번다”

### “죽자고 생각하니 부모님께 죄송” 부모에 돈 남기고자 性 산업 시작



인스타그램 김무리

부모가 자신을 키워준 돈을 갚기 위해 성인 산업에 뛰어든 일본의 20대 여성이 연간 47억원을 벌고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끈다.

일본 프라이디지탈에서는 도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동시에 성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루루카(26)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H컵을 자랑하는 루루카씨는 지난해 성인 비디오 한 편을 3만엔(약 28만원)에 판매해 무려 1억 2000만엔(1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월 수입은 6000만엔(약 5억 7000만원)이며, 연봉은 5억엔(약 47억엔)에 달한다고.

루루카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나 자신을 바닥으로 몰아넣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중학생 때 성폭행 당했고 멘탈은 항상 불안정했다. 당시에는 특히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예전에는 생활비가 없고 혼자 살기 위해서라고 거짓말했다. 진짜 계기는 부모가 키워준 만큼의 돈을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상 죽자고 생각하니 키워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사립 학교나 학원에도 보내 줬고, 교육비가 최소 1000만엔 정도는 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 돈만 갚고 죽으려고 했다. 매춘업소에서 돈을 벌어들여주기 위해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루루카씨는 “부모님은 엄격했지만 책만은 자유롭게 사였다. 고등학교 때 한 달에 30권 정도를 읽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만큼 책과 커뮤니케이션했다”라며 “중학교 때 어떤 책을 읽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법대에 들어갔다. 법조인이 되는 게 목표였지만 공부하다 보니 재미없고 어려워 대 학교 2학년 때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루루카씨는 약 6년 전인 2019년 성 산업에 뛰어들게 됐다. 이듬해에는 SNS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 약간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올린 뒤 유튜브로 끌어들이어서 내 팬이 될 수 있게 했다”라며 “유흥업소에서 수입을 늘리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단가를 서서히 올리는 쪽을 택했고, 시간당 4만엔(약 38만원)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개월치 예약이 꽉 찼고, 당시 월수입은 300만엔 정도였다. 지금은 시간당 20만엔(약 188만원)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정한영기자

##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 실내 흡연 제한한다는 이유로 폭행법 “유족 용서 못 받은 부분 고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한하는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상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동료 관계로, A씨는 B씨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추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자 수 시간 뒤 재차 B씨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 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숨진 사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격할 의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부검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예준기자

**김수엽** 대표변호사  
판사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무거운 혐의의 강력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위한 길을 제공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수협박·재물손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스톱킹 처벌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파악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 조력** [형사법 전문] 김수엽 대표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은 형사대응팀을 즉시 투입하여 사건현장에 대한 실사, 목격자 탐문, 통화기록 검토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②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 측에서 먼저 연락한 정황이 통화기록상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정황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스톱킹 처벌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으며,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 **010.3144.2613**

성범죄 | 음주운전 | 강력범죄 | 사기범죄 | 보이스피싱 | 불법도박 등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법무법인JK · 팩스 070-7007-9800 · 메일 lawfirmjk@junkyung.co.kr · 홈페이지 www.law-jk.co.kr

[01. 편지 접수/검토] 보내주시는 편지는 1차(대표변호인단) → 2차(JK변호인단) 후 편지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02. 접견 희망 시] 회신 내용 확인 후 편지로 접견을 요청하시면 접견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3. 사건 맞춤 변호사 배정] 접견 확정 시,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가 방문하여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수엽 대표변호사]

☑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1회)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 변호사 선임 및 상담 문의 시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재해주셔야 보다 원활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WFIRM JK**





우리 차뿐이에게

차뿐이 누나, 잘 지내지?  
내가 여기다가 사연을 보낼지 몰라서 놀랐겠지?  
놀라지 말고 잘 듣고 봐줘.  
우리가 비록 여기 안에 있지만 극복하고 누가 먼저 나가  
더라도 잘 지내고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  
난 아직 나갈 날이 멀어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누나는 아니니까...  
나가면 잘 살길 바라!  
난 누나 한 번쯤은 보고 싶다. 내 마음이 그래.  
누나는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곳에 있는 동안 정 많이 주면 좋겠어.  
물론 나도 노력할게.  
교도소에서 지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힘  
들겠지만 잘 이겨내서 다시 만나자.  
내가 많이 앞서간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일게.  
이 글 보고 소식 주면 좋겠어. 기다릴게.

땡땡땡이 차차차에게

○○○교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기선 레시피 책만 봐도 눈물이 나네. 네 생각에...)  
아무튼 오빠 아직 너 좋아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오빠  
진짜 이번엔 잘할 준비 다됐다(여기서 배운 거라곤 빨래,  
설거지뿐이야. 배웠으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내가 다 할  
게).  
보고 싶다, 내 사람.

○○○교

의 소송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대상자를 찾  
는 데 어려움이 있다”니요, 저희 모두는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졌으면 합니다.  
육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난받아도 됩니다.  
그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람답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는 공간만은 보장받고 싶습니다.

○○○교

전국에 계신 수형자 여러분과 <더시사법률>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  
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한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  
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  
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  
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  
황이며, 2㎡는 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  
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  
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자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소송을 할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시사법률>이 조금만 더 일찍 창간되어 이 사  
실을 모든 수용자들이 알았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교  
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  
입니다.  
부디 어느 변호사님이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빈자리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  
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  
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  
나마 덜 고달픈길 빌겠소.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  
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  
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야,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  
아섰을 때, 나도 괜히 지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  
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할게”라고 말했  
는데... 음... 그 약속을 이렇게 말아먹을 줄은 몰랐네.  
근데 진짜야. 이번엔 진짜 잘할게. 너 다시 만나면 매일  
아침마다 커피 내려줄 거고, 네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이는 법도 배워놓을 거야.

○○○교

사랑하는 ○○○에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  
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THE 시사법률 THE CURRENT LAW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문정역 SKV1 C동 614호 | 구독광고접수 02-2039-2683 | 팩스 02-2039-3084 | 발행편집인쇄인대표 윤수복 | 편집국장 손건우  
제작국장 김지우 | 2024년 9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가 50175 | 구독료 한 달 1만 5,000원(1부 1,000원) | 더시사법률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억압과 편견이 아닌  
희망의 씨앗으로

교정(矯正)  
잘못되거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음.



교정시설은 단순히 잘못을 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그들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정은 억압이 아닌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 단팥빵 크리스마스 (인천미결)

형이 가장 좋아하는 빵, 단팥빵. 요즘 나는 그 빵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녀. 버스 안에서 가끔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면 이상하게 형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잠시라도 덜 외롭다. 얼마 전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단팥빵을 자주 사가던 그분이 요즘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그분은 이제 해임됐고요, 제가 새로운 미스터 단팥빵이예요.” 그날 괜히 기분이 묘해서 단팥빵을 열 개나 사서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리고 형, 그거 기억나지? 내가 놀러 갔을 때 형이 맛있는 거 해준다면 콩나물 천 원어치 사 와서 정성껏 콩나물 냉국을 끓여줬던 거. 나한테는 맨날 세일하는 것만 사주고 말이야. 그때는 꽤 씩씩하며 웃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날의 그 냉국 맛이 그리워. 사내식당에 콩나물국이 나오는 날이면 그날 점심은 도저히 손가락이 안 가. 그냥 그날의 식탁과 형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조금 먹먹해진다. 처음 접견실 문을 열던 날이 아직도 선하다. 울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눈물이 흘러버렸지. 연휴에 당직을 서기로 했어. 빨간 날이라 수당이 조금 더 나오네. 그 돈은 다 영치금으로 넣어줄 생각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한 단팥빵을 함께 나눠 먹으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낼 날을 기다려.

### 베베나경주교미

무언가 떠올릴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견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78

### 켓어왕

진한 그리움이 느껴져요. 내색하지 않아도 묵묵히 버티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려 오네요. 형과 함께 단팥빵을 드시면서 별을 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응원합니다.

69

##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너에게 동동 (대구미결)

이 글이 신문에 실리면 네가 볼 수 있을까? 사실 요즘 스드쿠만 붙잡고 사는 것 같아 신문을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꼭 읽어 본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혼인신고를 마쳤던 2020년 이후로 올해 벌써 세 번째 아들을 만났네!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토끼 같은 세 명의 자식을 낳고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을 짹짹 채운 다섯 식구가 됐다. 선부르게 꾸민 가정이라 위태로울 때도 많았고, 어리고 철이 없어 구속 전까지도 하루하루 하루 싸우던 우리가 구속되던 날 이후로 처음 만났던 따뜻한 봄날로 돌아간 것 같아 다시 설렘이 가득한 요즘이야. 임신 18주에 법정구속되어 옆문으로 나가던 날 보면서 너무 놀라 눈물도 안 나왔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하면서 항소를 준비했지만, 희망은 무너졌지. 그런데 사람이 무서운 게 어떻게든 적응을 하더라도. 난 구치소 생활에, 난 만식의 워킹 맘 생활에 익숙해졌지. 몸조리도 못 하고 출산 4주 만에 다시 일터로 복귀했지만 그것마저 적응해 버렸네. 네 미안함을 알지만 걱정 말고,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생각이야. 우리 강 씨 가족 다시 뭉치는 그날까지 건강해야 해.

### 안개꽃 춘천미결

가족 모두 한곳에 모여 아이들의 장난치는 모습에 미소 짓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93

## 너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수인성 (부산미결)

자기가, 자기가 구치소에 수용되던 날 나는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왔어. 2025년 10월 2일은 아마 우리 둘 다 평생 잊지 못할 날짜가 되겠지. 의미 있는 날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 연휴 탓에, 그리고 혹시 스마트접견 예약을 못 할까 봐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어. 이 쉬운 걸 왜 여태 미뤘나 싶더라. 자기가 수용된 뒤 연이은 공휴일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아.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건 처음이라고 작 일주일인데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우리는 드디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어. 당장이라도 얼굴 보며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곧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와. 그날에 혼자일까 봐 우울할 뻔했는데, 평일이라 접견 신청하면 볼 수 있더라! 그날은 꼭 예약 성공해서 자기 보러 갈게. 같이 얼굴 보면서 축하하자! 나는 매일 접견을 가기 위해 부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어. 늘 그랬듯, 매일매일 보자 우리. 앞으로 결혼기념일은 혼인신고일, 결혼기념일 둘 다 챙길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아직도 못 한 프러포즈도 거기서 고만해 보도록 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금방 다시 만나자!

### 호호호

부산구 접견 잡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파이팅입니다!

80

### 뚜뚜충주미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혼자 혼인신고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전 안쪽이가 나온 후 올릴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같이 좋은 날 기다려 봐요!

62

## 씨앗은 싹을 틔운다 새벽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제게 그 시련은 아들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온갖 사고를 일으켰죠. 처음엔 부모니까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사고는 커졌고, 쏟아부은 돈이 역대를 넘어섰습니다. 돌이켜 보니 그건 아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더 벌여주는 미봉책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아들이 자기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석을 청하더군요. 저는 담당함을 가장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끝까지 다 살고 나오라.” 처음에는 원망하던 아들도 매주 세 통씩 반성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새 제 곁의 남편은 투병 끝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을 앞둔 아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수십 명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던 남편의 간절한 눈빛, 그 사랑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 누군가가 깊은 아픔 속에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라는 것ですよ.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희망을 틔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 현파수원구미

글을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저 역시 아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해지고 싶네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5

## 16세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audgm1618

안녕하세요. 저는 열여섯 살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와 작은누나가 교도소에 있고, 아빠는 돌아가셔서 큰누나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전부 차단당하고 소절당해서 친인척도 없습니다. 전 아빠한테 아동학대를 당해서 시설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명절이 되어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익숙한데도 이번 명절은 유난히 힘이 드네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밥, 청소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 혼자 해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익숙한 게 너무 싫네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재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고, 3심에서도 각각당해서 앞날이 캄캄해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한 상에 앉아 밥 먹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아직까지는 까마득히 먼일 같아요. 아마 지금쯤 엄마랑 작은누나는 집을 그리워하며, 쓸쓸히 창문만 바라보고 있을거죠?

### 별의 의정부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네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훨씬 빛나고, 밝을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이이니 좌절하지 말고 씩씩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102

### 예부산구미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른인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

72

### 혁이마마남부교미

마음이 찢어져요. 우리 아들 생각나고 미치겠네요.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파하지 말아요.

87

## 철없는 착한 돼지 뽕달 (원주미결)

철없고 바보 같은 돼지, 그래도 누구보다 착한 돼지야.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의도 참지 못하고 나서서 너를 볼 때면 때론 속상하고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만 했었는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깔끔 따는 성격의 네가 그 비좁은 곳에서 제대로 적응은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네. 밖에 있는 나도 너처럼 체념하고 묵묵하게 기다려 줄 테니까, 그곳에서 반성하고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올 수 있길 바라. 그리고 나와서는 더 이상 철없는 돼지가 아닌, 멋있는 남자 친구가 되어주길... 나 역시 뒤에서 도와줄게. 나이 정도면 최고의 여자 친구 아니야? 내가 한 최선의 노력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마음 잘 다스리고 견뎌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3주년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다음 기념일은 부디 함께 하자.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 한나여주교기

글이 너무 슬프네요.ㅠㅠ 저도 여자 친구 입장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돼요. 3주년 축하드려요. 기념일 혼자 보내는 거 너무 슬프죠. 저도 300일부터 800일까지 다 혼자 보내봐서 그 기분 알아요. 우리 파이팅해요!

61

## 나의 직업훈련 이야기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청주교도소)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 주시는데, 저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 선발 방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과정은 총 2년 과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사회에서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나, 여기 교도소에서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2년 과정 동안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차는 정보자격증(ITQ)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총 3종에 응시하게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점수에 따라 A, B, C 등급 중 1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있던 기수에서는 20명이 응시했고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2년 차에는 총 4과목에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40점 이하는 과락이며, 실기시험은 11월에 있습니다. 저희 기수는 1차 시험에 전원 합격하였으며, 다가올 2차 실기시험도 전원 합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노력하신다면 합격은 당연하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인 1PC가 지원되어, 환경적으로도 공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청주교도소 생활환경

#### (1) 교육장

교육장 내에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도 정결합니다. 또 교육장 내에 실내온도 조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는 아주 쾌적한 환경입니다.

#### (2) 거실

같은 직업훈련 과정을 듣는 훈련생 7~8명에서 한 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다소 좁은 편입니다.

#### (3) 생활지도

청주교도소는 2급 소여성 노동수용시설의 지도가 타이프하지는 않습니다.

#### (4) 해당 직업훈련 과정 관련

2년간 좌식 과정으로 진행되기에 원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관련 학점은 현재 수업과 더불어 코딩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 후기

올해(2025년) 그동안 진행했던 2년간의 학습 과정이 종료되고, 2026년이 되면 새 기수를 모집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몰입도 최강인 교육 과정입니다. 신청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 도배기능사 (홍성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교도소 2024년 하반기 훈련생으로서 도배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신청 자격

홍성교도소 도배 직업훈련 과정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정원은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훈련 과정보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 훈련 과정

이론은 선생님께서 2~3일 정도 알려주시고, 실습 교육은 반장 겸 조교님의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은 매주 2회 들어오셔서 실습 교육 과정을 돌러보십니다.

선생님의 이론 수업이 끝나면 반장 겸 조교님으로부터 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고, 각 조로 편성되어 실습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초배, 밀착 초배, 힘반이, 공간 초배 등의 순서로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손에 익어 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폭지 작업을 하게 되고, 광폭지, 실크지 작업순으로 배움이 이어집니다.

도배 작업에서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커터칼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물청소는 기본입니다. 물청소를 하다 보면 도배 풀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염려가 무척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험

시험 시간은 3시간 20분을 주는데, 보통 2시간 45분 안쪽으로 끝이 납니다. 실크지, 소폭지, 광폭지를 5매 이상 찢으면 불합격입니다. 시험 감독관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세 분이 나오십니다. 반장 겸 조교님이 시간 대로 연습하신 분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 홍성교도소 생활환경

홍성에는 장기 수용자가 많고, 공장도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전안, 홍성이 특히 직원들이 유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도 정말 좋으니, 한번 자격증 취득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식은 다른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장점은 특식이 잘 나옵니다(예: 삼계탕, 짜장면, 맘스터치 사이버거 등). 홍성교도소만의 특별한 장점 중 하나가 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동장이 넓습니다. 족구 네트 3개, 농구 골대 2개, 테니스 네트 1개가 다 들어갑니다. 스포츠에 필요한 용품인 테니스채, 배드민턴채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옛 건물이라 노후된 건 있지만, 오래된 건물인 데 비해 거실 환경은 엄청 쾌적합니다. 공기 순환도 잘 됩니다.

### 후기

손재주가 없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반장 겸 조교님이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출역도 좋지만 직업훈련을 통한 배움의 과정에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시사법률>입니다. 소중한 원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독자들의 의견 중, 원고에 직업훈련의 전체 과정 뿐만 아니라 해당 교정시설 분위기, 식사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면 현장의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시는 분 중 채택된 분께는 원고 지면 게재와 함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보영 대표변호사**  
 사법시험 50회 합격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전)부산지방국세청 법척위원  
 (현)부산구치소 교정위원  
 KNN 더로이어 고정출연

전문성으로 묻고,  
 신뢰로 답하는 법무법인 성현

부산, 경남권  
 그외 전국 모든 사건

 <b>근로기준법위반</b> <b>무 죄</b>	 <b>장애인복지법위반</b> <b>벌금감형</b>	 <b>음주운전</b> <b>집행유예</b>	 <b>사고후미조치</b> <b>약식명령</b>
----------------------------------	------------------------------------	--------------------------------	----------------------------------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광고책임: 박보영 변호사

**상담문의** (우편번호 47511)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빌딩 6층 | 변호사 선임, 상담, 접견 요청시 이름, 수형번호, 법원명,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접견은 매주 최소 1회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TEL. 051-503-5886 | 상담전화바로연결 010-5821-5886

# 집행유예 변호사 선임에서 시작됩니다.



대마초를 매수해서 총 3번 흡연을 했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마 매수와 흡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수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흡연이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횡수·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생활고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한 양이 적고 유통이 아닌 단순 흡연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여 결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동기, 횡수,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초기의 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

오 법무법인(유한) 안팍  
AHNPARK & PARTNERS  
24시간 변호사 1:1 직접상담


1533-0490

서울 주사무소 : (0615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 우준타워 12층  
서울 · 인천 · 부산 · 의정부 · 남양주 · 대구 · 제주 전국 7개 사무소  
E-mail. help@ahnpark.co.kr | Fax. 02-3478-0498  
광고책임변호사 : 안주영 대표변호사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  
창원, 대구, 인천, 울산, 서울지방 검사  
창원지방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부장검사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2급  
블루벨트 대검찰청 인증  
마약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

# 12 BOOKS






### 영화가 태어나는 곳에서

**가자 Pick!**

**예술** 제76회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부문 오프닝 상영작으로 공개된 영화 <파비안>에 관한 진실을 담은 영화론이자 사전적 영화 에세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에 걸쳐 배우-촬영지를 섭외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등 영화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고레에다 감독이 공들인 모든 것의 기록을 담았다. 직접 찍은 현장 스케치 사진부터 촬영 중 스태프들에게 보낸 사해 연하장, 영화 <어느 가족>, <브로커>, <괴물> 관련 에피소드 등이 수록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비채 19,500원



### 오늘이 내일을 데려올 거야

**청소년** 어느 날 먼 미래에서 시간 여행자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요약된 책을 지니고서 찾아온다면 어떨까? 그 책을 읽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 저자는 그간 수줍고 외로운 아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대변해 왔다. 그리고 이 책에도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죄책감, 혼란을 품고 있는 외로운 소년 마이클이 등장한다. 초반에는 주변 인물들과 독자의 눈을 피하려던 마이클이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차츰 몸을 돌려 모두와 똑바로 마주하려 애쓰고 있음을 느끼고 응원하게 될 것이다.

에린 엔트라다 켈리  
책읽는곰 18,000원


**KYOBO 교보문고**

## 취미실용 주간 베스트

1.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모테스토 가르시아 / 중앙북스
2. 더 챔피언(The Champion)  
송영주 외 / 맥스미디어
3. 털실타래 Vol.13(2025년 가을호)  
일본 보고서 / 한스미디어
4. 가비지타임 스티커북  
2사장 / 비에이북
5. 러닝 챌린지 100  
이재진 / 푸른숲
6. 이지가드닝을 위한 정원식물 100  
김경희 / 북수책방
7. 살림의 책  
이지영 외 / 책사랑집
8. New 미꽃체 손글씨 노트  
최현미(미꽃) / 시원북스
9. 스토쿠 1(초급/중급)  
수피아편집기획팀 / 수피아
10. 탑스프링 스토쿠 고급 특급  
브레이니 퍼즐 랩 / 시간과공간사

출처: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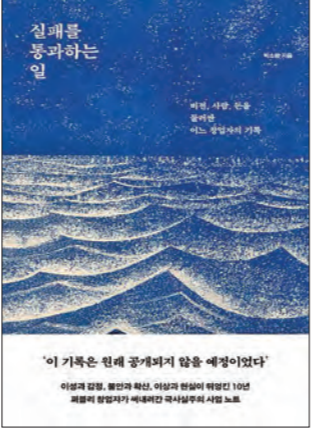


### 불안을 멈추는 기술

쉽게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이들을 위한 감정 훈련법

**에세이** 사소한 일에도 불안하고 쉽게 긴장한다면, 이제는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다루는 방식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사소한 대화 한마디에도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 책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도록 안내한다. 누구나 불안을 경이와 호기심으로 바꾸어 창의적이고 단단한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주변과 세상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마사 백, 김미정  
알에이치코리아 25,000원



### 실패를 통과하는 일

비전, 사람, 돈을 둘러싼 어느 창업자의 기록

**경제 경영** 이 책은 콘텐츠 스타트업 '퍼블리(PUBLIY)'를 창업해 10년간 이끌었던 저자의 사업 노트다. 그러나 이 책은 유니콘 기업의 성공담도, 드라마틱한 엑시트 스토리도 아니다. 대신 잘못된 선택과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 그 한가운데서 버텨야 했던 결정적 상황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화려한 포장 대신 오관과 후회, 책임의 무게가 페이지마다 드러난다.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단단한 통찰도 함께 녹아있다.

박소령  
북스톤 20,000원



### 슈퍼소닉

오아시스 공식 인터뷰집

**예술** 이제 막 데뷔한 신생 밴드가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노래, 앨범 판매 기록, 수많은 수상 내역이 필요할까? 1994년에 데뷔한 오아시스는 이 모든 답을 한 몸에 지닌 밴드였다. 그리고 해체 이후 15년 만에 재결합을 알리며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다. 오아시스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가장 뜨거운 이름,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오아시스  
다산책방 53,000원



### 파과

**문학** 이름은 조각(爪角). 한때 '손톱'으로 불리던 그녀는 40여 년간 정부 살인을 업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몸도 기억도 예전 같지 않게 뼈까지 거러면서 이제는 퇴물 취급을 받는다. 한편 노화를 겪으며 조각의 마음속에 지지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 생겨난다. 버려진 늪을 개를 데려다 키우는가 하면, 정부 살인 의뢰인의 눈에서 슬픔과 공허를 발견한다. 삶의 희로애락을 외면하고 살아온 조각의 눈에 타인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에 온기가 스며든다.

구병모  
위즈덤하우스 15,800원

# LAW FIRM FRONTIER

##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마약 재배/흡연  
집행유예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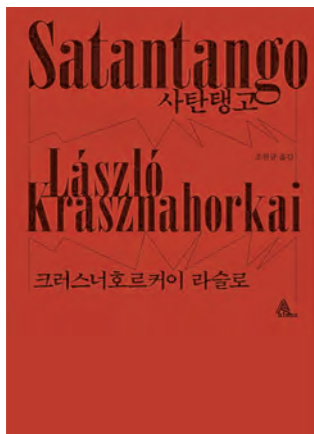
준강간  
무죄(국민참여재판)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 변호사 접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은 (법원명), (사건번호), (수번)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직통전화 : 010-2419-9575  
주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180, 아이홈대연 상가 301호

이메일 : frontier9575@naver.com /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분사무소 : 서울 | 부산 | 화성 | 청주 | 천안 | 아산 | 여수 | 포항



크라스너호르카이 라슬로  
알마 19,800원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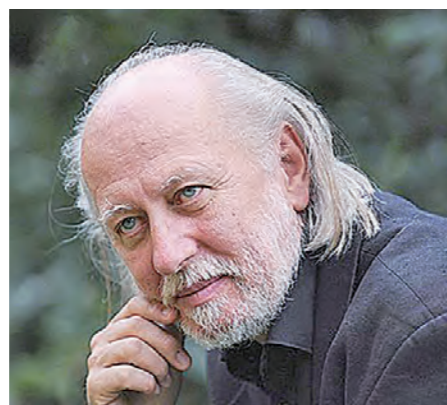
크라스너호르카이라슬로

국내에서는 생소할지도 모를 크라스너호르카이 라슬로는 헝가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재능과 고도의 역량을 갖춘 작가로 평가받는 그는 묵시록적인 주제와 정서를 특유의 기위(奇味)한 문체와 형식에 담은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독창적인 작품 세계와 작품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헝가리 국내 및 국제 문학상을 받아오다 2015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자가 되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머리나 워너는 “크라스너호르카이는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음역을 가진 몽상가적 작가다. 그는 겁이 나고 낯설면서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웃긴 장면을 만들어 낸다”고 평했다.

사탄탱고  
2025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늘의 Check!

“ 악마와 추는 탱고,  
앞으로 여섯 스텝 뒤로 여섯 스텝을 밟으며  
곧게 닫힌 영원의 원(圓)을 이룬다 ”



저자 크라스너호르카이 라슬로.

문학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가던 1980년대 헝가리. 해체된 집단농장의 마을에 남아 가난과 불신의 늪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보내던 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1년 반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리미아시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그가 가을장마의 시작과 함께 귀환한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달콤한 꿈에 부풀는 한편, 무언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종 없이 들려오는 종소리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천 개의 몰락이라는 공포를 부추긴다. 『사탄탱고』는 몰락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쳇바퀴에 다시 포박되어 영원한 악순환을 이루는 과정을 절망의 묵시화로 그려낸다. 『사탄탱고』의 출간은 크라스너호르카이의 작품을 열망해 온 국내 독자들의 목은 감증을 해소할 단비가 될 것은 물론, 문화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반가움을 선사할 것이다.



벨라 타르 감독이 제작한 소설 원작의 영화. 해당 영화는 7시간 18분이라는 기록적인 러닝타임으로 유명하다. 영화 《사탄탱고》 스틸컷.

1日1食

1일1식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



나구모 요시노리  
위즈덤하우스 16,800원

건강

10여 년 동안 ‘1일 1식’을 실천하며 56세의 나이에 혈관 나이 23세, 매끈한 피부, 잘록한 허리를 유지해온 저자가 우리 몸에 맞는 최적의 식사법을 소개한다. 보통의 건강서와 달리 금주와 운동을 권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하루 한 끼를 고집하지 않는 등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최대의 효과를 보는 법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등 일상 속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피터 자이한  
김앤김북스 19,000원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정치 사회

2021년 1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체제를 다시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책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는 해체되고 미국이 구축하고 책임져 온 세계 질서는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기는커녕 추락과 붕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다.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김지현  
더퀘스트 21,000원

클래식을 읽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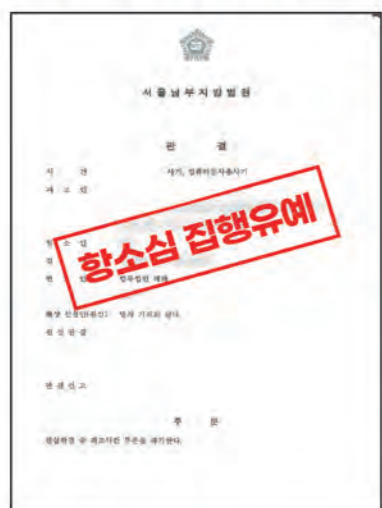
읽으면 듣고 싶어서 클래식 이야기 207

예술

아직도 클래식이 지루하고 격식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 가까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가? 지금 클래식 음악은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힙한’ 음악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가 인기를 끌고, SNS와 공연장에서는 연주자들의 팬덤이 자라나고 있다. 취미로 악기 연주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었다. 클래식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선 사람들은 도파민 넘치는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주사무소 | 서울 전국 6개 분사무소 | 인천 · 수원 · 대전 · 천안 · 안산 · 제주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15명 중 10명 합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변호 전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당시, 피해자 15명 중 단 한 명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추후 발생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노력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각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을 세심히 파악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태하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15인 가운데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된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 서면·대면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사건 이후의 반성, 추가 범행 방지 계획과 변제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변론과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1심의 실형 판결이 뒤집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의 경우 상대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태하가 함께하겠습니다. ”



채의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 상담 문의는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24시 법률상담 | 1533-1403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 Sports

### 용어해설

라인 드라이브(Line Drive) : 라인 드라이브는 강하게 맞은 타구가 낮고 빠른 궤적으로 날아가는 직선 타구를 말한다. 지면과 거의 평행하게 뻗어나가 수비수가 반응하기 어려우며, 안타 확률이 높은 타구 유형이다.

## 깨어난 삼성 타선, 구자욱까지 살아나면 금상첨화



연장 11회말 끝내기 득점을 올린 김혜성과 환호하는 오타니 쇼헤이. 연합뉴스

### ‘기다림의 6경기’ 다저스 김혜성 포스트시즌 출전, NLCS행 기여

에드먼 대신 투입된 대주자, 맥스 먼시 안타에 3루 진출 후 홈 쇄도해 로버츠 감독의 교체 카드 적중... 대주자 투입 3분 만에 끝내기 주인공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서 벤치만 달구던 김혜성이 첫 출전 경기에서 끝내기 득점을 기록, 팀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에 올려냈다.

김혜성은 10일(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에서 연장 11회말 1사 1루에서 토미 에드먼의 대주자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김혜성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이날 경기까지 포스트시즌 6경기 연속 선발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철저히 외면당했다. 교체 출전도 없었다. 그런데 첫 출전에서 짜릿한 순간을 경험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1로 맞선 연장 11회말 1사 후 에드먼이 좌전 안타를 치고 출루하자 발 빠른 김혜성을 대주자로 투입했다.

김혜성은 후속 타자 윌 스미스가 중견수 직선타구로 물러나면서 움직이지 못했으나 이어 등장한 맥스 먼시의 중전 안타 때 빠른 발을 이용해 3루까지 도달해 끝내기 찬스를 만들었다.

다저스는 키케 에르난데스의 볼넷으로 절호의 만루 기회까지 잡았다. 하지만 타석에 선 앤디 파헤스가 힘없는 투수 앞 땅볼을 치면서 그대로 이닝이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투수가 한 차례 공을 떨어뜨렸고, 급히 주위 홈으로 던진 것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 사이 3루 주자 김혜성이 홈을 파고들어 경기를 끝냈다.

끝내기 득점의 주인공이 된 김혜성은 오타니 쇼헤이 등 동료들과 일사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21 극적인 승리를 거둔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시카고 컵스-밀워키 브루어스 경기의 승자와 월드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툰다.

뉴스1



삼성 구자욱.

삼성 라이온즈 제공

### 준플레이오프 1차전 승 잡은 삼성 남은 과제는 ‘캡틴 구자욱’ 깨우기

눈 야구로 볼넷을 얻고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다리던 안타는 터지지 않았다. 타선 폭발로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아낸 삼성의 ‘마지막 퍼즐’은 구자욱이다.

삼성은 지난 9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5-2로 승리했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85.3%에 달하는 중요한 1차전을 삼성이 선점했다.

내용도 고무적이었다. 앞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에서 타율 0.115로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졌던 타선이 마침내 터

졌다. 이재현과 김영웅이 홈런포를 가동했고, 침묵하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도 3안타 경기를 펼쳤다. 와일드카드 2경기 도합 6안타에 그쳤던 삼성은 이날만 9개의 안타로 5점을 뽑아냈다.

타선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던 박진만 삼성 감독도 모처럼 터진 타선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 바로 구자욱이다.

팀의 3번 타자를 맡은 구자욱은 아직 타선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에서 7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에 그쳤고,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4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에 머물렀다.

3경기 성적은 11타수 무안타 2볼넷 2득점이다. 잠잠하던 디아즈와 김영웅이 준플레이오프 시작과 함께 화력을 터뜨린 것과 달리 구자욱의 방향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진만 감독도 경기 후 “타격이 살아야 팀 분위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1차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제 구자욱만 살아나면 될 것 같다”라며 구자욱의 반등을 기대했다.

구자욱은 10일 열리는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왼손 투수 김건우를 상대한다. 김건우는 올 시즌 선발과 볼펜을 오가며 35경기에 등판해 5승 4패, 2홀드, 평균자책점 3.82를 기록했다. 5월 말부터 선발로 전환했고, 9월에는 경기 모두 5이닝 이상 투구하며 선발승을 챙겼다.

좌타자 구자욱은 올해 정규 시즌 우투수보다 좌투수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우투수 상대 타율은 0.293인데, 좌투수 상대 타율은 0.371로 훨씬 높다.

김건우도 상대한 적이 있다. 표본은 적지만 2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으로 괜찮은 성적을 냈다. 처음 만나는 투수가 아닌 만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타선의 힘으로 1차전을 잡아낸 삼성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있다. 이 기세를 이어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노리려면 구자욱이 살아나야 한다. 마지막 퍼즐 구자욱이 깨어날 수 있을지, 이날 SSG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의 주요 승부처다.

뉴스1

### 당신의 손끝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악플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의 손끝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알제리,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 북중미행 확정



승리 후 기뻐하는 알제리 대표팀 선수들.

연합뉴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G조 선두 확정  
소말리아 제압, 최종전 관계 無 본선행

알제리가 12년 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무대에 오른다.

알제리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 시각) 알제리 오랑의 밀루드 하데피 스타디움에서 소말리아와 치른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조별리그 G조 9차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알제리는 7승 1무 1패로 승점 22를 쌓아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날 보츠와나에 1-0으로 승리한 조 2위 우간다(승점 18·6승 3패)와 승점이 4점 차이로 남은 한 경기로는 역전이 불가능하다.

6개국씩 9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는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각 조 1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이후 2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벌이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팀은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나서 마지막으로 본선행에 도전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나라는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에 이어 알제리가 네 번째다.

알제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알제리는 조별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한국을 4-2로 꺾고 16강에 올랐으나 독일에 1-2로 패해 탈락했다. 이때 16강 진출이

알제리의 월드컵 최고 성적이다.

이날 소말리아전에서는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뛰었던 리야드 마레즈(알아흘리)가 공격을 이끌었다.

마레즈는 전반 6분 모하메드 아무라(볼프스부르크)의 선제골에 관여했고 이후 13분 만에 직접 추가골을 터트렸다.

후반 13분에도 아무라와 함께 승부에 쐬기를 박는 골을 합작하며 도움을 기록했다.

프랑스 축구 전설 지네딘 지단의 아들인 골키퍼 루카 지단은 내내 벤치를 지켰다.

27세의 루카 지단은 20세 이하(U-20)를 포함한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에서 두루 활약했으나 최근 소속 국가협회를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변경했다.

루카 지단은 아버지가 알제리 이민자 2세대 출신이라 알제리 국가대표로 뛸 자격이 있다.

뉴스



알제리 지도.

연합뉴스



특정하고 기뻐하는 부카요 사카.

연합뉴스

## ‘단장·감독 동반 퇴진’ 울산, 최정호 단장 직무대행 체제로

성적 부진 책임 물어 감독·단장 모두 경질  
울산, 잔여 시즌은 비상 운영 체제로 돌입

프로축구 K리그1 울산HD가 신태용 감독 계약 해지 및 김광국 대표이사 퇴진 이후 최정호 사무국장에게 단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울산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단장 직무대행으로 최정호 사무국장을 선임, 당분간 최정호 단장 직무대행 체제로 구단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울산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신태용 감독과 결별했고, 김광국 대표이사도 팀을 떠났다.

김광국 이사는 지난 8월 김판곤 감독을 경질할 때도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구단의 만류로 잔류했었다.



울산HD.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신태용 감독 계약 해지 이후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로 코칭스태프를 꾸린 울산은 감독과 단장 모두 대행 체제로 잔여 시즌을 치르게

됐다. 한편 울산은 9승 10무 13패(승점 37)로 12개 팀 중 10위에 머물러있다.

뉴스

## 잉글랜드, 전반 20분 만에 3골 ‘폭발적 구위’ 웨일스에 3-0 ... A매치서 3연속 무실점 질주

킵오프 3분 만 선제골, 전반 3득점 얻어 로저스 감각 슈팅으로 웹블리 첫 골 장식

‘축구중가’ 잉글랜드가 안방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웨일스를 완파하고 최근 A매치 3연승의 신바람을 냈다.

잉글랜드는 10일(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일스와 평가전에서 3-0으로 이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조별리그 K조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며 조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잉글랜드는 이번 A매치 기간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평가전에 배정해 선수단을 점검했다.

잉글랜드는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킵오프 3분 만에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맞았다. 마크 게이(크리스탈 팰리스)가 뒤로 내준 공을 모건 로저스(애스턴 빌라)가 한 박자 빠른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대 왼쪽 아래 구석에 정확하게 찰라넣었다.

이후 8분 만에 게히는 다시 한번 도움을 기록하며 올리 왓킨스(애스턴 빌라)의 추가 골을

이끌었고, 그로부터 9분 뒤에는 부카요 사카(아스널)의 골이 이어져 잉글랜드의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 득점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잉글랜드가 경기 흐름을 지배했다.

공 점유율도 잉글랜드가 64%-36%로 크게 앞섰고, 전체 슈팅 수도 17-10으로 우위를 보였다.

잉글랜드는 이로써 최근 A매치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지난달 열린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에서 안도라와 세르비아를 각각 2-0, 5-0으로 제압했다.

완승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의 미지근한 응원 분위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투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장이 정말 조용했다”라며 “관중석에서 아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웨일스 팬들 목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우리 팀이 더 큰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뉴스

## ‘킹’ 제임스, 부상으로 NBA 23번째 시즌 개막전에 결장



르브론 제임스.

연합뉴스

좌골신경통 증세로 최소 3주 결장 확정  
시범경기·훈련도 불참, 부상 장기화 우려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2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킹’ 르브론 제임스(40)가 정규리그 개막전에 나서지 못

한다.

10일(한국 시각) ESPN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레이커스 구단은 제임스가 오른쪽 좌골신경통으로 3~4주 더 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임스는 오는 23일 안방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예정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2025-2026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

에도 뛸 수 없게 됐다.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 시작해 발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될 때 발생하는 신경통의 일종이다.

NBA는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시범경기를 진행 중이다. 레이커스가 치른 2경기에서 제임스는 모두 출전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지난주 시작한 팀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단의 부상 관련 발표 전 레이커스의 J.J. 레디 감독은 제임스의 상태와 관련된 질문에 “자체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12월 31일 만 41세가 되는 제임스는 200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돼 NBA에 데뷔한 뒤 20년 넘게 슈퍼스타로 활약해 왔다. 지난 시즌까지 통산 4만2천184점을 쌓아 NBA 정규리그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통산 정규리그 출전은 1천562경기로, 앞으로 50경기에 더 나서면 이 부문 역대 1위가 된다. 앞서 22시즌을 뛰어 빈스 카터(은퇴)와 최다 시즌 출전 공동 1위인 그는 이번 시즌 출전하면 이 부문 단독 1위에도 오를 수 있다. 다만, 부상 결장 변수로 이달 중에는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뉴스

# 각 잡고 돌아온 베이비몬스터, 새 도약 준비 끝

YG 프로듀서 군단 + 해외 작곡진 투입 '세련된 힙합'으로 음악 정체성 공고히

결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신보 '위 고 업'으로 도약에 나선다.

베이비몬스터는 10일 두 번째 미니앨범 '위 고 업'(WE GO UP)을 발매했다. 지난 7월 디지털 싱글 '핫 소스'(HOT SAUCE)를 발매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이다. 그사이 데뷔 후 첫 월드투어를 마친 만큼, 베이비몬스터는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가요계에 돌아오게 됐다.

동명의 타이틀곡 '위 고 업'은 온 세상을 자신들의 음악으로 물들이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힙합 기반의 곡으로, 베이비몬스터의 강렬한 에너지가 돋보인다. 특히 '핫 소스'를 통해 보여준 발랄하고 경쾌한 모습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예고돼 기대감을 높인다. 베이비몬스터는 '위 고 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앨범에는 타이틀곡 후보로 경합을 벌였던 '사이코'(PSYCHO), 힙합 요소가 매력적으로 가미된 슬로우곡 '수파 두바 러브'(SUPA DUPA LUV), 컨트리 장르 기반의 댄스곡 '와일드'(WILD)까지 총 4개의 신곡이 수록된다. 특히 신보를 위해 CHOICE37을 비롯 DEE.P, P.K, 강욱진, AIRPLAY, Diggy, LIL G, LP, Sonny 등 YG 프로듀서 군단이 의기투합했고, 앞서 발표한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와 '드립'(DRIP)에서 호흡을 맞췄던 해외 작곡진이 힘을 보탤다.



베이비몬스터.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간 베이비몬스터는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발표해 왔다. 다이내믹한 트랙과 중독성 있는 훅이 돋보이는 '배터 업'(BATTER UP), 웅장한 사운드와 곡 구성이 인상적인 '쉬시'(SHEESH), YG표 서머 송 '포에

버'(FOREVER), 유니크한 트랙 '클릭 클락'(CLIK CLAK), EDM 기반의 힙합 댄스 곡 '드립', 80년대 올드스쿨을 재해석한 '핫 소스' 등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곡을 선보이며 '세련된 힙합'이라는 팀의 음악적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이에 '위 고 업'으로 베이비몬스터가 또 어떤 스타일의 곡을 들려줄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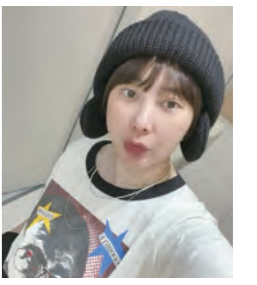
베이비몬스터는 5세대 결그룹 중에서도 유독 실력과 손꼽힌다. 멤버들이 보컬과 랩, 퍼포먼스 실력까지 갖춘 '올라운더'이며, 수많은 음악 방송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은 수식어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왔다. 또한 컴백할 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K팝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무대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하는 베이비몬스터가 '위 고 업'으로 어떤 우리를 발산할지도 기대가 모인다.

뉴스

서인영, SNS로 전한 '+10kg' 근황 "코 보형물 제거 진행했다" 고백

컴백 시기는 다이어트부터 하고 정할 것

가수 서인영이 체중이 10kg 증가했다며 근황을 알렸다.



서인영 인스타그램 캡처

서인영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하던 중 체중이 10kg 증가한 사실을 밝히며 "(얼마 전까지) 42kg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쪼다"며 "10kg 정도 쪼긴 것 같다, 전에 38kg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 돌아온다, 살은 빼면 된다, 솔직히 말했을 때는 마른 것도 좋았는데 나는 지금 살쪼는 게 좋고 마음이 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속상한데 내가 먹어서 쪼는 거 어떡하나, 맛있는 거 먹고 돈 들어서 쪼였는데 열심히 또 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인영은 체중 증가 외의 외모 변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코에 있었던 보형물을 빼고 알린 것. 그는 "나는 이제 코(보형물) 다 빼다"며 "원래 코끝만 엄청 뾰족하지 않았나, 더 이상 코에 뭘 넣을 수 없는 상태 다 빼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백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작곡가)윤일상 오빠랑 녹음한 곡이 있다, 좋은 곡인데 시기를 정하는 중이다"라며 "일단 살을 빼야 나올 것 같다, 녹음은 해 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인영은 지난 2023년 2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뉴스

## '100km 만취 운전'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음주 운전 신고자로 알려져 부담 호소 경찰, 경위 파악 위해 수사 착수 검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

불법 도박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개그맨 이진호 씨(39)의 여자 친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 쯤 접수된 112 신고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아파트에서 숨진 여성 A씨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는 A씨의 지인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 씨의 연인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자택까지 약 100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부 언론은 이 씨가 여자 친구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고 이후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주변에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유족 입장을 고려해 사망 원인과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 등 발견된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일단은 단순 변사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 정일우, 미모의 CEO와 '럽스타'→ 빠른 삭제 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너른 양해 부탁"

상대는 식품 전문 기업 여성 CEO 데이트 현장 담근 게시물 업로드

배우 정일우가 한 식품 전문 기업 여성 CEO와 '럽스타그램'으로 보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로 인해 열애설에 휩싸였다.

정일우는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좋은 날"이라는 글과 함께 한 여성과 데이트 중인 듯한 사진을 게재했다.

두 장의 사진에는 같은 공간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정일우와 여성의 모습이 담겼으며, 각

자의 사진 밑에 SNS 계정을 태그해 놓았다.


사진 속 여성은 국내 유명 식품 전문 기업의 CEO로 알려졌다. 정일우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다.

정일우는 빠르게 사진을 삭제했으나, SNS를 중심으로 열애설이 퍼졌다. 이후 정일우의 소속사 제이원 인터내셔널 컴퍼니 측은 "배우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너른 양해 부탁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일우는 현재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에 출연 중이다.

뉴스

**법무법인 선우**  
☎02-537-9550



**김문정 변호사**



**윤보미 변호사**

**구독자 Q&A**

서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고 항소 도중 현재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서울로 병합을 할 수 있나요?** 부산과 대전을 서울에서 오고 가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서울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수죄" 또는 제2호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로서 관련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 추가 사건들이 기소되어 아직 제1심 단계라면, 부산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서울에서 이미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원)으로 직접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공동되는 직근 상급법원(부산, 대전의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공동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될 것, 대법원 2006. 12. 5. 선고 2006초기335 결정 등 참조)에 병합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합심리 신청 시 각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면 상습범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은 주장해야 해봐야 할 것이고, 각 범행이 별개의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구속 중인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든 점,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고민이 있을 때? 법무법인 선우"

**여러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 한 법원에서 병합 재판 가능할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9층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김문정 변호사 (서초동, 아스트라) 우) 06646



# 세븐틴, 핑크팬서리스 히트곡 리믹스 “의미 있는 협업이었다”

‘일리걸’(Illegal) 재해석해 발표  
신선한 조합이 새로운 매력 선사

그룹 세븐틴 멤버 디에이, 민규, 버논이 영국 싱어송라이터 핑크팬서리스(PinkPantheress) 히트곡 ‘일리걸’(Illegal)을 재해석했다.

10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 멤버가 리믹스한 ‘일리걸 + 세븐틴’은 이날 오전 8시 국내외 주요 음원 플랫폼에 공개됐다. 노래는 이날 발매된 핑크팬서리스의 리믹스앨범 ‘팬시 섬 모어?’(Fancy Some More?)에도 수록됐다.

‘일리걸’은 영국 일렉트로닉 뮤지션 언더월드(Underworld)의 ‘다크 앤 롱 - 다크 트레인’(Dark & Long - Dark Train)을 샘플링한 트랙에 드럼 앤 베이스 사운드를 더한 개러지풍의 노래다.

이 곡은 지난 5월 공개 이후 미국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 100’에 진입하고, 스포티파이에서도 1억3000만 회 이상 재생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서로의 음악을 즐겨 들던 세븐틴과 핑크팬서리스는 히트곡 ‘일리걸’에 새로운 매력을 담아보자고 뜻을 모아 ‘일리걸 + 세븐틴’을 탄생시켰다.

디에이, 민규, 버논은 브라질 출신의 유명 라틴 뮤지션 아니타(Anitta), 영국 인기 걸그룹 리틀 믹스(Little Mix) 출신 제이드(JADE) 등과 함께 ‘팬시 섬 모어?’ 참여 아티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세계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평소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인 만큼 즐겁게 작업했다. 팬 분들과 글로벌 리스너 분들께 신선한 조합으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협업이었다”라며 “리듬에 집중해 감상하신다면 이 곡의 매력을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핑크팬서리스는 2021년 데뷔해 ‘허셀프’(Herself), ‘보이스 어 라이어 파트?’(boy’s a liar pt. 2) 등을 히트시킨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다.

그는 지난해 ‘2024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프로듀서’로 선정되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뽑은



세븐틴, 핑크팬서리스.

Julian Song 제공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뉴스

# ‘억만장자 힙합계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로 징역 50개월 선고

성매매 강요 혐의로 4년 2개월... “단순한 매수자 아닌 조직적 관여”

활동명 ‘퍼프 대디’로 잘 알려진 미국 래퍼 션 디디 콧스(55)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의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징역 50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콧스의 음악적 경력과 흑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다만 그의 범죄에 대해 “두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단정했다.

특히 콧스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흔한 성 매수자일 뿐”이라는 주장에 판사는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돈으로 조직했다”라고 강조했다.

콧스는 판결 직전 판사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으나, 결국 판사는 그의 범죄 행위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5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콧스는 힙합계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여성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기소된 5개 혐의 중 성매매 강제나 범죄단체 활동 공모 등 3개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콧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후 매트루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이번 판결로 약 3년간 추가 복역을 하게 됐다.

한편 콧스는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잘 알려진 래퍼로, 1990년대 후반 배드 보이 레코드를 창립하며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의류·주류·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콧스는 수년 전부터 성폭행 및 성매매 관련 민사 소송에 잇달아 휘말렸고, 2016년 전 여자친구 캐시를 호텔 복도에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큰 지탄을 받았다.



‘퍼프 대디’ 션 디디 콧스.

AP=연합뉴스

# 일본 아이돌, 술 취해 길거리에서 하반신 노출 ... 경찰에 체포



일본 아이돌 Axi!group

Axi!group 인스타그램

술 취한 상태로 하반신 노출해  
공연 음란 혐의로 활동도 중단  
일본 아이돌 Axi!group 멤버가 공연

음란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매체들은 Axi!group 멤버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가 도쿄 신주쿠의 한 건물 입구에서 하반신을 노출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뉴스

한 행인이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를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였다.

이에 소속사 스타토티엔터테인먼트는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팬들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쿠사마의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가 소속된 Axi!group은 2019년 결성되어 지난해 5월 정식 데뷔했다.

쿠사마 리차드 케이타는 1996년생으로, 아버지가 미국인이다. 정식 데뷔 전부터 일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뉴스

# 켄달 제너, 가슴만 겨우 가린 파격 의상 선보여 불륜감 있는 몸매에 탄탄한 복근까지 더해 “완벽”

美 연예 매체가 프랑스에서 포착  
과감한 패션으로 존재감 드러내

모델 켈달 제너가 핫한 몸매를 드러냈다.

미국 연예매체 스포르티는 켈달 제너가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사진 속 켈달 제너는 몸에 붙는 레깅스 핏 바지에 초록색 상의를 입은 모습. 특히 가슴을 겨우 가리고 허리를 노출한 과감한 패션에 켈달 제너의 완벽한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눈길을 끈다.

켈달 제너는 불륜감 있는 몸매에 탄탄한 복근까지 과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켈달 제너는 미국 출신의 모델이자 방송인으로, 세계적인 패션 아이



켈달 제너.

사진=스플래시

콘으로 성장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런웨이에 데뷔한 그는 샤넬, 지방시, 발방, 베르사체 등 주요 하이엔드 브랜드 쇼에

오르며 글로벌 톱모델 반열에 올랐다. 최근 파리 패션 위크에서도 완벽한 비율로 시선을 사로잡은 바 있다. 뉴스

\*광고책임변호사: 백흥기변호사

## 대전 형사사건 30년, 경험으로 답하는 백흥기 대표변호사

**형사사건과 재판 절차의 무게**

형법이나 특별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형사 재판이며,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검찰 기소,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 속에서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분들께**

1심 판결 전 사전 구속은 불리한 시작일 뿐, 재판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 구속이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본안 재판에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시작임은 명백해져, 따라서, 사전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의 외부 조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께**

1심 판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항소심이라는,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연장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구성되며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찾아내고, 새로운 증거나 양형자료를 통해 양형이 정당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다투게 됩니다. 이처럼, 형량이 과도하다면 1심에서 다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집행유예를, 무죄를 다투다면 1심의 논리를 뒤집을 결정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왜 형사사건은 백흥기 변호사인가**

형사재판은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와 어떤 형식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까지 꿰뚫고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흥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30년간 형사재판을 직접 변론하며, 각 재판부의 성향과 판결 경향을 누구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왔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어떤 구조로 의견서를 써야 판사가 바로 핵심을 이해하는지, 어떤 증거와 양형자료가 실제로 집행유예로 이어지는지를 몸소 체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구속사건과 항소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판결문들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사사건에서 백흥기 변호사가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대표번호

042-472-1668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204호 BK파트너스  
백흥기 대표변호사 직통번호 : 010-8614-1668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백흥기 대표 변호사

# 스타 오늘은

게재를 원하시는 스타가 있다면 우편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문정역 SKV1C동 614호(우: 05854)

**배우 정소민**




배우 정소민이 SBS에서 열린 금토 드라마 '우주메리미'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배우 크리스탈**




그룹 f(x)(에프엑스) 출신 배우 크리스탈(정수정)이 가수 컴백을 예고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1]

**리센스 원이**




걸그룹 리센스 원이가 인터뷰 전 Hanbok을 공개 차려 입고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트와이스 채영**



그룹 트와이스 채영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첫 솔로 앨범 (릴 판타지 불룸)을 발표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티아라 효민**



그룹 티아라 효민이 브라톱과 짧은 레깅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사진=티아라 효민 SNS]

**우주소녀 전 멤버 성소**



그룹 우주소녀 출신 중국 가수 청샤오(성소)의 달린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웨이보]



**LAW FIRM S**  
법무법인 에스

형사사건    성범죄    마약

대표변호사 **임태호**

\*광고책임 : 임태호변호사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53회
- 사법연구원 43기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성전카페 직접운영**



**법무법인 에스를 발견하셨다면,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접견 요청시 이름/수형번호/법원명/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화인빌딩 4층    ☎ 02-3473-3880

10월 11일 (토) TV 편성표

\*편성 및 프로그램은 지역 방송사 또는 교육방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MBC, SBS, EBS1. Rows list TV programs such as '응급 처치 교육', '약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 '식중독 예방',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항', '생방송 (KBS1)', 'KBS 뉴스', '팔도방송', '사랑의 가족', 'KBS 네트워크 기획', 'KBS 뉴스', '동행', '국가유산순례 듀오', '추석 특선 살아있는 지구3 8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편',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항', '심리적 위기수용자 자살 예방', '방송종료'.

10월 12일 (일) TV 편성표

\*편성 및 프로그램은 지역 방송사 또는 교육방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MBC, SBS, EBS1. Rows list TV programs such as '수용자 재난 안전 교육(보안과)', '약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 '마약퇴치운동본부 공익광고(마약사범재활팀)', '행복 이음 센터 안내(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수상한 방송국', '수상한 방송국', '왔다! 내 손주', '특집 다큐-시대의의 문화', 'EBS 다큐프라임', '취미는 과학(53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한국기행', '세계극한직업-추성훈의 법값은 해이지', '세계극한직업-추성훈의 법값은 해이지', '추석특집 3부작 글로벌 한인기행 김영철이 간다3부', '2025 라이온의 탄생', '달까지가자(8회)', '2025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 SSG:삼성(대구)/(2안)', '미운우리새끼(2안)', '런닝맨', 'SBS 8 뉴스', '맨인블랙박스 스페셜', '식중독 예방 안내(복지과)', '폭행 신고 안내(보안과)', '약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항', '심리적 위기수용자 자살 예방', '방송종료'.

10월 13일 (월) TV 편성표

\*편성 및 프로그램은 지역 방송사 또는 교육방송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MBC, SBS, EBS1. Rows list TV programs such as '편성 안내 및 교육', '스마공-격언', '생방송 KBS1', '생방송 SBS', 'SBS 10 뉴스', '애니갤러리', '보스아내 건강수다', '오전 TV 방송 종료',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생방송 MBC', '타닝메카드 갓', '한글, 목소리로 피어나다', '2시 뉴스 외전', '편성 안내', '위대한 소 태권6-1,6-2회', '무식 소녀단 2', '오늘은 매출지도 올라 1회', '오늘은 매출지도 올라 1회', '체널A 녹화방송', '마음산책 5분 인문학', '모네상스 제공', '스마공-사자성어', '안내 및 교육', '생방송 KBS1', 'TV 방송 종료 및 교화 라디오', '편성표 작성 기준일 생방송 미편성', '생방송 MBC', '생방송 SBS', 'SBS 8 뉴스', 'TV 방송 종료 및 교화 라디오'.

두뇌계발 스토쿠

스도쿠 정답 우측 >>

9x9 Sudoku grid with some numbers filled in: 1, 6, 4, 2, 5, 3, 4, 1, 2, 6, 5, 1, 3, 6, 4, 5, 1, 7, 8, 9, 3, 4, 5, 6, 7, 8, 9.

- ⇒ 스토쿠 푸는 법
1 가로 9칸에 1-9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세로 9칸에 1-9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3 3x3 박스 안에 1-9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1 2 3 번에 겹치는 숫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9x9 grid of numbers representing the solution to the Sudoku puzzle.

오늘의 날씨

11일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지역별 주간 날씨' table with columns for regions (Seoul, Gyeonggi, etc.) and days (11th to 16th),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 편성표는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되었으며, 주 5일제 도입 전까지 오락 페이지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형민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성범죄 항소심

## 집중 대응



의뢰인 후기  
**3,059**



의뢰인 만족도  
**100%**



의뢰인 총 평점  
**5.0/5**

비교하기도, 따라 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사례, **김형민 변호사의 실력과 진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 2025. 9. 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형제880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9. 30. / 부산지방법원 / 2025형제923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9. 21. / 서울특별시경찰청 / 2025-00655x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배포등) / 불송치(혐의없음)
- 2025. 9. 17.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5고정7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5. 9. 4. / 부산지방법원 / 2025노93x / 성폭법위반 / 선고유예(벌금200만원)
- 2025. 8. 20. / 수서경찰서 / 2025-00547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 2025. 8. 13.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 / 2025형제587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8. 1. / 경기도남부경찰청 / 2025-00586x /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배포등) / 불송치(혐의없음)
- 2025. 7. 29. / 서울도봉경찰서 / 2025-00333x /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 2025. 7. 2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형제866x호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7. 17. / 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163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5. 7. 12. / 김포경찰서 / 2025-00770x / 성폭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 2025. 6. 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고합71x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선고유예(벌금300만원)
- 2025. 6. 2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 2025형제1223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6.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형제1553x호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5. 27. / 수원지방법원 / 2025형제2314x호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5. 2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고합2x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구속징형정지 인용
- 2025. 5. 1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56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5. 5. 16. / 인천지방법원 / 2025초보11x / 강제추행 / 보석 인용
- 2025. 4. 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형제978x호 / hpv 성병 상해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3. 26.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 2025형제49x호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3. 14.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 2024형제219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매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3. 5. / 경기남부경찰청 / 2024-00655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2. 1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09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5. 2. 7. / 인천지방법원 / 2025-13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 기각
- 2025. 1. 20. / 전남경찰청 / 2024-00150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1. 16. / 광주지방법원 / 2024노48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5. 1. 9. / 대법원 / 2023도1753x / 성폭법위반 / 무죄취지 파기환송
- 2025. 1. 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00388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1. 2. / 제주지방법원 / 2025-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구속영장 기각
- 2025. 1. 2. / 인천경찰청 / 2024-00699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 1. 2. / 경기분당경찰서 / 2024-00987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2. 17.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2024-01271x / 강제추행,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1. 22.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5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11. 22. / 대구지방법원 / 2023노509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11. 13. / 인천지방법원 / 2024형제6648x호 / 성폭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1. 7. / 청주지방법원 / 2024노8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11. 6. / 부산지방법원 / 2024노115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4. 10. 30. / 대구경찰청 / 2024-00132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0. 11. / 수원지방법원 / 2024형제2066x호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배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0. 2. / 서울도원경찰서 / 2024-00581x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9. 30.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33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구속영장 기각
- 2024. 9. 24. / 창원지방법원 / 2023노253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9. 24. / 수원남부경찰서 / 2024-01049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9. 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389x /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4. 9. 6.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 2024-00808x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8. 29.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 / 2024형제558x호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8. 21. / 경기북부경찰청 / 2023-00312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8. 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158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원심파기
- 2024. 8. 13. / 대구지방법원 / 2023노331x / 성폭법위반,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4. 8. 9. / 대전둔산경찰서 / 2024-00430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7. 26. / 대전지방법원 / 2022노371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4. 7. 9. / 대전고등법원 / 2024노16x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배포), 강요 / 무죄
- 2024. 7. 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73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4. 6. 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134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4. 6. 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형제823x호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6. 13. / 청주지방법원 / 2023고정7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6. 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528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4. 6. 5. / 춘천지방법원 / 2024-15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 기각

- 2024. 5. 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73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5. 13. / 서울동대문경찰서 / 2023-00719x / 아청법위반(강간), 아동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5. 2. / 경북경주경찰서 / 2023-00440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5. 3. / 수원지방법원 / 2023노221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4. 4. 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14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4. 25. / 창원지방법원 / 2024형제490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4. 24. / 청주지방법원 흥성지원 / 2023고합5x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배포) / 무죄
- 2024. 4.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93x / 강제추행 / 무죄 - 원심파기
- 2024. 4. 16.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 2024-00163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4. 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형제781x호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3. 19.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3고합5x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배포) / 무죄
- 2024. 3. 14. / 대구경찰청 / 2023-00035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2. 19. / 서울경찰청 / 2024-00093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2. 19. / 서울경찰청 / 2024-00090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2. 14. / 경북포항남부경찰서 / 2023-00624x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2. 8. / 대법원 / 2023도930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취지 파기환송
- 2024. 2. 1.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정2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4. 1. 31. / 수원지방법원 / 2024-11x호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구속영장 기각
- 2024. 1. 26. / 수원지방법원 / 2024형제26x호 /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 1. 23. / 광주고등법원 / 2023노49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2024. 1.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31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죄
- 2023. 12. 27.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 2023형제1914x호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2. 22. / 대구지방법원 / 2023노186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12.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단357x /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3. 12. 8. / 강원경찰청 / 2023-00127x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 2023. 12. 6. / 대전지방법원 / 2021노423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3. 11. 25.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 2023-01291x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65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11. 23. / 울산지방법원 / 2022노120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3. 11. 22. / 인천지방법원 / 2022노211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11. 22.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 2023-00947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1. 17.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2023-01013x /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1. 15.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3고정6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11. 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8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10. 30. / 대구달성경찰서 / 2023-00336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0. 27. / 대구지방법원 / 2022노499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3. 10. 2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3고합8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2023. 10. 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형제15847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10. 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37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9.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정5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9. 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30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3. 9. 19. / 서울강남경찰서 / 2023-01272x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9. 15. / 창원지방법원 / 2023고단82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9. 13. / 대전지방법원 / 2021노366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3. 9. 8. / 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230x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 원심파기
- 2023. 9. 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23x / 성폭법위반,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3. 9. 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고정18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8. 31. / 울산지방법원 / 2023형제1807x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8. 2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 2023형제1788x호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8. 11. / 부산지방법원 / 2022노102x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 2023. 8. 10. / 청주지방법원 / 2023고정24x /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3. 8. 9.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3고단6x /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8. 8. / 대구지방법원 / 2022노472x / 성폭법위반 / 무죄 - 원심파기
- 2023. 7. 19.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 2023-00509x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7. 18. / 수원지방법원 / 2022노413x(2023노268x병합) /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성폭법위반 / 무죄
- 2023. 6. 2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 2023형제453x호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배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 6. 14. / 청주지방법원 / 2023노1x / 성폭법위반,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 2023. 6. 13. / 대전고등법원 / 2023노6x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구속석방)

NAVER

김형민 변호사

검색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4층, 401호  
대표번호: 02-591-8660

※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변호사 직통 : 010-8074-8595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아청법 #도촬

광고책임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http://성범죄.net